술~술~ 그림 보는 이도 취하네

'막걸리 산책전' … 18일까지 무돌아트갤러리
오늘 오픈 … 판소리 공연 등 흥겨운 잔치 마련

고재근 작

화폭에 술내음이 가득하다. 어는 순간 주류계를 휘어잡아 버린 막걸리가 화폭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막걸리와 함께 연상되는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들이 화폭에 담겼다.

'화가들과 함께 하는 막걸리 산책전'이 11일부터 18일까지 광주예술의 거리 무돌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참여작가들은 막걸리에 얽힌 저마다의 추억을 모티브 삼아 다양한 그림들을 선보인다. 전시회를 찾은 이들은 갤러리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보며 자기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된다.

전시회 오픈일인 11일 오후 6시에는 비아 막걸리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후원으로 막걸리 판이 벌어지니, 놓치면 아쉽다. 이날은 간단한 공연도 열린다. 고현미씨의 판소리 공연, 홍영씨의 대금 연주, 고재종 시인의 시낭송, 하성관씨의 통기타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전시회 출품 작가는 모두 12명. 고재근씨는 화사한 꽃나무 사이사이에 사람들의 사연이 담긴 막걸리를 걸어두었다. 도예가 김영설씨는 술을 넣어두고 따라 마시면 좋을 법한 도자기 작품을 내놓았다.

'막걸리는 에너지며 나눔'이라고 이야기하는 김도기씨는 찌그러진 주전자와 사발, 김치 종지를 화폭에 풀어놓았다. 수채화가 김효삼은 막걸리 한 사발을, 마문호는 막걸리 한 잔에 하루의 피로를 씻어버릴 것 같은 일하는 이의 모습을 그렸다.

또 서기문의 그림 속에서는 호박꽃을 사이에 두고 농을 주고 받는 어르신들 모습이 담겼다. 한희원은 술에 취한 어느날의 소회를 담은, 누군가에게 고백을 앞두고 있는 꽃을 든 남자의 모습을 담았다.

김효삼 작

서기문 작

윤남웅과 주홍, 박문종은 유쾌한 상상력이 담긴 그림을 선보인다. 박문종은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화폭 대신 사용했고, 막걸리와 두부김치 한점에 위로를 받았던 기억을 털어놓은 주홍은 꿈을 꾸고 있는 이를 화폭에 담았다.

그밖에 박동신·김평준씨가 참여했다. 문의 062-234-272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윤모 '아버지' 美 교민들 울렸다

LA 비전아트홀 공연 성황리 마쳐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위해….'

광주와 서울 등지에서 100회 넘게 공연되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박윤모 모노 드라마 '아버지'가 미국 교민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미국 LA 비전아트홀에서 공연된 모노 드라마 '아버지'는 향수에 젖은 교민들의 마음을 흔들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1998년 초연된 '아버지'는 소설가 한승원의 유일한 희곡으로 고희연을 맞은 김오연이 11남매를 키워온 사연들을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풀어낸 작품이다.

미국 스타니슬라브스키 연기대학이 운영하는 '국제창작스튜디오' 초청으로 LA를 방문한 '아버지'는 모두 7차례 공연됐다. 특히 26일에는 한국 기업 그린알로에의 후원으로 LA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초청, 시연회를 갖기도 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LA에서 활동중인 트렌스젠더 배우 스칼렛 조가 극중 딸로 출연해 한국 공연과는 색다른 느낌을 줬다.

박씨에 따르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50~70대들이 대부분이었다. 사는 곳만 다를 뿐 세상의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듯, 11남매에 얽힌 애틋한 사연들이 하나씩 소개될 때마다 관객들은 웃음과 눈물과 박수로 화답했다. 특히 박씨가 객석의 관객들을 작품속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일 때마다 쑥스러워하는 듯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1시간 30분간 홀로 무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하는 모노드라마 '아버지'는 이제 박씨와는 뗄 수 없게 됐다. 올 초 지역 연극인으로는 드물게 서울 예술의 전당 공연을 진행했던 박씨는 이번 LA 공연까지 모두 124회의 공연을 마쳤다. 가을부터는 광주 궁동예술극장에서 장기공연을 통해 관객들을 다시 만날 예정이다. 박씨는 기회가 닿으면 내년에도 미국 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씨는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 보니 교민들 대부분이 연극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분들이었다"며 "가족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울고 울었던 행복한 무대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싱그러운 자연의 멋

고흥 도화헌미술관 30일까지 늘그릴전

고흥 반도 끝자락 시골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인 도화헌미술관(관장 박성환)에서 '늘그릴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부스별 개인전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충청도를 기반으로 활동중인 서양화 그룹 '늘그릴회'가 초대돼 구상과 비구상, 추상 등 다양한 기법의 작품 5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참여 작가는 김관진·김기반·류헌걸·박선옥·임영우·조도현·최재숙·홍석출씨 등 8명이다.

이들은 시골 풍경과 소나무, 꽃의 조형성을 부각한 작품 등을 통해 자연이 주는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한편, 도화헌미술관에서는 전시 이외에 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김관진 작 '향촌'

빈교실을 활용한 민박도 가능하다. 문의 061-832-133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빛고을 연꽃문화제에 오세요

13일 무각사 5·18공원

광주의 어린이들이 부처님 도량에 모여 마음속의 부처님을 쓰고 그리는 신나는 축제가 펼쳐진다.

(사)동련 광주지구(회장·원각사 주지 도제스님)는 13일 오전 9시 상무지구 무각사 5·18기념공원 일대에서 '제3회 빛고을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만 5세 이상 유치원생,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글짓기(초등학교 3~6학년), 그림(크레파스화·수채화) 두 부문에 걸쳐 대상·최우수상·특별상 등이 수여되고 입상자에게는 노트북, 전자수첩 등 푸짐한 선물도 준비돼 있다.

행사장에서는 전통놀이, 단청체험, 놀이 마당이 펼쳐지며 마술공연, 오카리나·대금 연주, 노래잔치, 비보이 공연도 열린다.

문의 www.wongaksa.org 062-955-440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독서논술문화원

13일 6·25 논술대회 개최

광주독서논술문화원(원장 이현채)이 주관하고 광주지방보훈청이 후원하는 6·25전쟁 60주년 기념 제 21회 전국학생논술경시대회가 13일 전남대 인문대학 3호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광주독서논술문화원은 호국정신 함양과 자유·평화·정의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95년도부터 연 2회, 학생논술경시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글제재는 당일 대회장에서 주어진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232-8688.

/김대성기자 bigkim@